

세계의 에너지문제와 일본의 進路

本稿는 지난 4月13日부터 15日까지 日本 東京에서 開催된 第21回 日本原産 年次大會 開會세션에서 特別 講演한 内容이다.



生田 豊朗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 理事長〉

日本原子力産業會議의 1988년도 연차대회에서 「세계의 에너지문제와 일본의 진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1988년)은 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로부터 15년, 그리고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로부터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편 금년부터 금세기말 또는 21세기 초까지 기간을 생각해 보면 실은 12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부터 12년 후에 우리들은 새세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제1차 오일쇼크로부터 21세기까지의 도정에 있어서 현재의 시점은 이미 그 반을 지났습니다. 오일쇼크에서 현재까지의 기간보다도 현재부터 21세기까지의 기간이 더 짧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세계의 에너지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또 현재도 변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세 변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석유정세를 보면 1973년부터 1980년까지의 7년간과, 그후 1981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1982년부터 최근까지의 7년간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석유의 수급이 거의 일관되게 타이트했으며, 결국 파는 쪽이 유리한 시장이 형성되었고 석유가격이 계속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또 1982년부터 최근까지의 7년간 석유정세는 一轉하여 석유가격도 변동을 반복하면서 油價의 하락과 낮은 수준에서의 안정형태로 바뀌었습니다.

「分水嶺」인 1981년은 세계적으로 석유수요가 감소되었고, 사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석유가격은 반대로 상승하는 수급관계와 가격과의 이상한 交錯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그후의 정세는 OPEC의 단결력과 시장지배력이 점차 약화되어 減産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었고,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1986년의 석유가격붕괴(Collapse)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OPEC은 재단결에 성공하여 석유가격도 회복되어 안정을 맞이했으나, 작년 여름 이후 다시 OPEC의 減産態勢는 파탄되어 재작년(1986년) 연말에 설정된 18\$ 고정가격제도 거의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단기간의 석유가격 전망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本人은 현시점의 가격수준, 또는 좀 더 낮은 가격수준으로 한동안 추이할 것

으로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년 1986년에 볼 수 있었던 가격붕괴의 現象, 즉 원유가격이 10\$을 깨는 低價로 까지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석유가격의 수준이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어 석유의 수급이 공급과잉의 상태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단기적으로 한동안 석유가격이 低迷를 계속한 후에 中期的인 전망으로는 석유수급은 다시 타이트해지리라 생각되며, 그에 대응하여 석유가격도 또 상승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시점은 1973년부터 1988년에 이르는 15년간의 변화, 즉 제1단계는 수급의 타이트化, 석유가격의 상승이며, 제2단계는 需給의 緩和, 석유가격의 하락경향이었는데 그것이 그 다음 단계, 즉 제3단계로 이행하는 중간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이 시점에 서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노력해온 에너지정책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에너지정책베이스로서의 에너지문제란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리고 장래의 시점, 즉 현재에서 21세기 초에 걸친 中期的인 전망에서 에너지문제,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현시점은 그와 같은 에너지정책의 검토와 새로운 장래 전망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시대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목표해온,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 온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에너지는 당초에는 먼저 석탄이었고, 뒤이어 석유가 등장하여 에너지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에너지多消費型的 경제발전에 대해 급격한 제동을 건 것은 1973년의 제1차 오

일쇼크입니다. 물론 이 제1차 오일쇼크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그런 변화가 출현될 것이 예상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하여 아랍의 산유국이 석유전략을 발동, 오일쇼크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년 후에는 이란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석유의 수급문제가 지정학적인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1차 오일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선진공업국, 즉 석유소비국은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관(IEA)이 설립되어 IEA를 중심으로 석유소비국간의 국제협력체제가 구축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단기적인 석유공급의 감소 또는 두절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의 비축을 증가, 석유대체에너지의 이용을 더욱 확대, 또 新에너지공급원으로서의 新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에너지공급면의 정책외에 에너지수급면에서도 省에너지, 즉 에너지의 보존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매우 커서 과거 10년간에 GNP 1單位當의 에너지소비량은 OECD제국에서 약 30% 감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 퍼포먼스가 한층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의 중첩효과에 따라 세계의 에너지시장, 특히 석유시장은 예전의 매도인이 유리한 시장에서 매수인이 유리한 시장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석유시장의 구조변화는 두가지 수단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정책의 성과이고, 둘째는 市場의 機構가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에너지정책과 결부된 형태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제1차 오일쇼크후 8년간, 즉 제1단계에서 실현된 에너지시

장의 구조변화, 매도인이 유리한 시장에서 매수인이 유리한 시장으로의 변화는 결코 자연히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PEC산유국의 석유생산이 급격히 대폭적으로 증대된 것은 석유수급의 밸런스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OPEC이 석유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종래에는 채산성이 없었던 코스트가 높은 유전이 채산이 맞게 되어 개발에서 상업생산으로 이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석유대체에너지도 종래 저렴한 가격의 석유와는 경쟁할 수 없었던 대체에너지, 예를 들면 석탄 등이 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도 역시 제1차 오일쇼크전에는 가격경쟁력이 없었던 것이 제1차 쇼크에 의한 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일거에 경쟁력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단지 석유가격의 급상승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면 그 변동폭은 보다 크고, 또 변동의 타이밍도 언밸런스여서 그 결과 세계경제도, 세계에너지수급도 보다 큰 불안에 처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에너지정책과 결합함으로써 퍼포먼스가 보다 높고, 더구나 전체적으로 더욱 안정된 수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세계에너지시장, 특히 석유시장의 수급안정, 가격의 저수준에서의 안정 등 석유소비국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전술한 바와 같이 결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매수인이 유리한 시장이며, 그 인위적인 시장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本人은 에너지문제, 또는 에너지정책이란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세큐리티, 또는 안정공급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너지문제, 에너지정책에서 세큐리티문제를 제외시

키면 그것은 다른 상품, 또는 다른 산업에 대한 문제나 정책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은 에너지의 대량소비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나타나 종래노선의 지속이 어려워졌으며, 세계경제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성장·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점이 에너지문제 또는 그에 대한 에너지정책의 연구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가 있습니다. 제1차, 제2차 오일쇼크 및 그 직후의 시기, 즉 제1단계의 시기에서는 이 에너지의 입수문제와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가 때로는 혼동되어 제기되거나 생각된 일도 있습니다. 특히, 제1차 오일쇼크前 세계경제가 석유의 대량소비를 베이스로 하여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던 시기에 만약 그런 성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향후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으나, 이것은 그 예측의 진실성을 별도로 해도 그 직후에 발생한 오일쇼크와 혼동되어 때로는 문제점의 발견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에너지문제를 中長期的으로 전망하는 한은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를 당면의 문제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超長期의 문제로 생각할 경우에는 역시 자연고갈의 문제를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두가지 측면, 즉 에너지의 입수문제와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 모두에 대해 에너지의 가격과 수요관계 또 가격과 공급관계 이 두가지 문제가 큰 의미를 가지면서 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中期 내지 長期문제에 대해 論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부터 2000년까지 또는 21세기에 들어서서 30년 내지 40년 사이의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석유수급이 어

떨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상황 및 단기적 전망으로는 석유수급은 안정된 경향이며 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해 가는 한에서는 에너지 전체의 소비 및 석유 소비는 서서히 증가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973년 이후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省에너지정책**에 따라 경제구조, 산업구조가 에너지 **多消費型**의 구조에서 **省에너지型** 구조로 변화되어 온 점 또 기술의 개발과 진보에 의해 에너지의 **原單位**가 저하되어 온 점, 즉 **GNP 1單位當**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이 적어진 점 등 상당히 강렬한 변화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변화의 결과가 計量的으로는 GNP와 에너지소비 사이의 **彈性值**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친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탄성치가 그대로 계속되거나, 또는 더 탄성치가 저하된다는 예측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와 같은 큰 구조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낮은 탄성치는 계속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구조변화, 기술진보는 계속된다고 생각되지만 그 속도가 서서히 둔화되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탄성치는 조금씩 상승되어 가리라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세계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하면 에너지소비량도 경제성장률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되는 경향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체의 동향은 석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석유에서 석유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상당히 발전되어 온—아직 포화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석유에서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은

종래 보다 속도가 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LDC와 NICS의 경제성장이 OECD제국보다도 높은 비율로 지속되면 그 나라들은 에너지소비 對 GNP原單位가 높으며, 또 대체에너지의 공급에 제약이 있으므로 석유소비의 증가는 현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에너지수요, 그중에서도 석유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本人은 그에 대해서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석유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그후 난기류로 이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유가격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밸런스가 맞는 수준(예를 들면 20\$/배럴)으로 회복되어 그것이 계속되는 또는 석유가격이 더욱 상승을 계속해도 그 상승이 비교적 평온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중 어느 쪽이 좋은가하면 두번째 경우가 세계전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경우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첫번째 경우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석유가격 수준, 즉 1배럴당 13\$에서 15\$ 정도의 석유가격수준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먼저 **非OPEC**의 석유생산에 대한 영향은 현재 조업 중인 유전의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규개발투자는 상당히 둔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OPEC중에서도 페르샤만 연안 이외의 비교적 코스트가 높은 산유국에서는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석유와 석유대체에너지의 관계는 개개 에너지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라집니다만, 발전용연료로서의 경제성을 볼때 석유와 비석유연료, 즉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을 비교해 보았을때 지금까지와 비교해 비석유연료의 코스트 우위성이 더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석유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비교했을 경우 석유가격이 13~15\$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원자력발전 쪽이 경제적으로 약간 유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리라 생각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코스트가 더 상승한다든지 또는 약간의 원인에 의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이 저하될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과 석유화력발전의 경제성의 상대적인 포지션이 역전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유럽, 미국, 일본이 각각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는 모두 LNG 형태로 수입되어 소비되며, LNG의 수입계약은 석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LNG의 경쟁력도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체로서 석유와 석유대체에너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경우에 석유가격이 저수준에서 정체를 계속하는 것은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 추진의 큰 협력자였던 시장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에너지정책을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종래보다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석유가격의 저수준이라는 것은 석유소비국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장래의 불안한 요소를 만들게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적인 에너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석유에서 석유대체에너지로의 전환도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적으로는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또 비OPEC의 석유생산은 점차 포화점에 달해 그후 서서히 감소되어 갈 것으로 생각되므로 결국 세계의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은 중국적으로는 OPEC, 그중에서도 페르샤만 연안 산유국의 석유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거나, 또는 거의 거기에 의존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 OPEC석유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도 상당히 증가하여 2,300~2,500만배럴/일의 선에 접근하고, 그것을 넘게되면 아마 OPEC은 다시 가격의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석유가격이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低迷에서 탈피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에 1배럴당 20\$ 정도까지 회복을 하면, 이 경우에는 비OPEC 산유국에서의 신규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OPEC 산유국의 석유생산은 보다 오랜 기간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석유와 석유대체에너지와의 관계에서는 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라 원자력, 석탄 등 석유대체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다시 강해지므로 석유에서 석유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전체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합리적인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라면 세계에너지의 수급밸런스, 또는 가격의 동향은 비교적 평온한 형태로 추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의 입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즉 석유의존도의 저하도 평온한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프트·랜딩이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를 정책의 대상으로서 강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나, 초장기적인 전망을 해 보았을 경우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化石연료는 어느 것이든 언젠가는 고갈되는 고갈성에너지라는 점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수요면으로는 LDC(개발도상국), 특히 많은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공 또는 인도와 같은 국가의 동향이 그것입니다.

그밖에 개발도상국 전체에서는 현재도 논코머셜·에너지(非商業에너지)가 상당히 대량으

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열대림의 고갈과 같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만들어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연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그런 거대한 개발 도상국이 빨리 경제적으로 이룩하여 경제발전의 노선에 올랐을 경우 세계 에너지문제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그 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 전체로서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거대한 인구를 가진 그런 국가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비상업 에너지에서 化石연료 등의 상업에너지로 전환되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점차 증가되어 현재 선진공업국의 수준에 접근해 가면 세계 전체로서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현격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세계적으로 化石연료자원의 고갈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류는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에 당면하리라 생각됩니다. 에너지문제는 현재도, 1973년 이후 현재까지의 가까운 과거에도, 그리고 중장기의 전망에서도 먼저 세류리티의 문제입니다. 즉, 에너지의 입수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입수의 문제가 결코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중간단계에 있으므로 마치 에너지문제가 해결되어 이미 그것을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착각을 일으키기 쉽지만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에너지문제가 발생하는 제3단계로 이행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3단계로 이행되어 석유를 중심으로 에너지가격이 다시 상승되어도 석유가격의 상한은 현재의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한 실질 가격에서 1배럴당 30\$의 수준은 상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를 상회했을 때에는 다시 그에 대한 反作用이 여러가지 면에서 표출될 것입니다. 결국 제1차 오일쇼크 후의 제1단계에서의 석유가격 상승에 대해 나타난 정

책적인 대책과 市場에서의 반응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30\$을 돌파해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30\$을 상한으로 하여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자원, 예를 들면 태양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추진할 경우 어쩌면 석유가격이 1배럴당 30\$을 상한으로 하여 변화된다면 신 에너지의 개발 또는 상업적인 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갭을 어떤 방법으로 메꿀 것인가. 즉, 중장기와 초장기의 전망 사이의 갭을 메꾸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현시점에서 생각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계 에너지문제의 최대문제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라고 하나 국내에 거의 에너지자원을 갖지 않은 경제대국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세류리티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체질을 갖고 있으며, 장래 에너지자원의 고갈문제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제일 강하게 받습니다. 즉, 자력으로 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세계 전체로서의 에너지문제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의 본질을 일본의 경우는 보다 강하게 에너지의 확보- 이것은 중장기의 입수문제, 초장기의 자원고갈문제 등 일본의 경우는 일본 이외의 선진공업국, EC 또는 미국보다도 더 강한 노력을 에너지정책에 기울이지 않으면 세계의 발전속에서 일본이 탈락할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本人은 에너지정책은 결코 그 중요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종래보다 더 에너지정책이 중요하며, 그 배경으로서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